

성도의 빛 11

1975



월 간 성도의 벗

제11권 제11호
1975년 11월호

순서

- 1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라 스펜서 더블류 킴볼
- 3 지역 대회 보고 래리 힐러
- 9 동양의 진주: 홍콩
- 11 대만: 가파른 봉우리와 강한 신앙
- 13 일본의 친구
- 14 필리핀의 친구
- 15 홍콩의 친구
- 16 한국의 친구
- 17 대만의 친구
- 18 친구가 친구에게: 훌륭한 아들을 얻은 나의 어머니
에드니 와이 고마쯔
- 19 심심풀이
- 21 일본: 해뜨는 나라에 비친 복음의 빛
- 25 동양의 불사조: 한국
- 28 바야니한 군도: 필리핀
- 30 신전 건립
- 31 교회 및 지역소식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앤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에зра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톱 페리

등록번호 라-932

1976년 10월 4일

발행일 1975년 11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124호

발행인 겸 편집인: 엘 에드워드 브라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번역: 한국번역 출판부

전화: 74-6832

발행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514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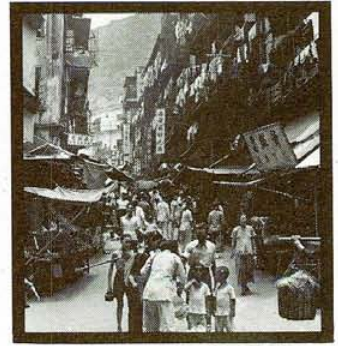
인쇄인: 삼화인쇄주식회사 유건수

© 1975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성도의 벗의 1년 장기구독료는 1200원입니다. 특집을 제외한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입니다. 장기 구독자의 주소 변경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30일입니다. 구 주소와 신주소가 동시에 도착되지 않으면 주소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의 항공 1년 구독료는 일본, 홍콩, 마카오, 중국이 7불, 필리핀, 태국이 9불,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가 14불,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근동 아시아가 18불이며 선박은 어느 곳이나 3불입니다. 구독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성도의 벗사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전면: 새로 개축된 아리조나 신전 프랑크 게일 촬영

증명: 아리조나 신전 구내 부스 앤드 리스틀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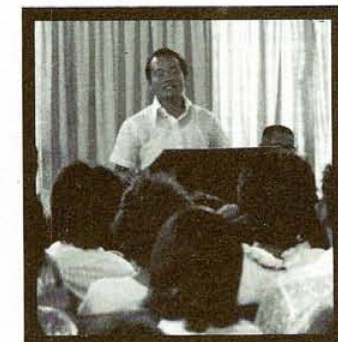
9 페이지



21 페이지



25 페이지



대관장단 메시지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라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제이차 연차 대회를 끝낼 시간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내가 원한 만큼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아름다운 간증과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대회의 말씀을 들으신 수백만의 청취자들이 모두 정결한 마음과 받아들이고자 하는 태도로 이 말씀을 들으셨기를 바라며 수백만에 달하는 교회 회원의 일원으로 헤아림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이를 간증드립니다. 온 세상의 주민들이 그들의 편견과 오해를 버리고, 순수하고 가식이 없는 복음이 있는 그리스도의 우리 안으로 들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총관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본되는 원리입니다.

며칠 전 기자 회견 석상에서 나는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로, 대관장님께서 가장 크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미 발전의 문제에 대하여 토론했습

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상당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지도자를 찾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만 우리는 기꺼이 잘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할 때, 나는 세계의 지도권이 아시아와 바벨론에 있었던 당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제 저녁 롬니 부대관장님께서 신권 위원회에서 하였던 구약시대의 벨사살왕—바벨론이 고레스왕에게 정복당하기 전, 바벨론을 통치하던 마지막 왕인 느부갓네살왕의 아들이요 계승자—의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느부갓네살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스러운 솔로몬의 성전을 더럽히고 성소에서 값지고 소중한 물건을 취했던 느부갓네살의 신성을 모독한 행위를 생각했습니다. 벨사살왕은 1,000명의 신하들을 위해 큰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수천 명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연회상에서 천 명을 먹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미 주님께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헌납된 성전에서 아버지가 취해 온 급제와 은제 그릇에 만족하지 못한 벨사살왕은 흠쳐 낸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고는 그의 궁으로 갖고 가서

천 명의 신하 뿐 아니라 왕자와 아내들과 첩들에게까지 권했습니다. 그의 손님들은 먹고 마셨으며,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을 찬양하였습니다. (단 5:1-4)

나는 오늘날 이 세대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때의 그 음란했던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요즈음 신문이나 잡지를 읽으면서 나는 두 세대간의 놀랍고도 무서운 유사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곳에서 큰 연회가 벌어지고 많은 지역 사회의 지도자와 저명 인사들이 초대되는 기사를 읽습니다. 그들의 음주, 사치, 부도덕, 수치 등에 대한 기사를 읽습니다. 그럴 때 나는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구나”라고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날의 도덕적인 상태에 관하여 토론하는 데 지쳤습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 사람에게 회개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 계명을 지키라. 또한 내 계명에 좇아 나의 일이 성취되도록 조력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교성 6:9)

그런 후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한 자를 보시는 주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런고로 너희는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도록 부름을 받았느니라.” (교성 18:13-14) 초기 성도들이 미주우리주로 이동할 때 주님은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도 전도하며 가는 곳마다 진리를 간증하라. 부한 자나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난한 자나 다 방문하여 회개하게 하라.

“세상의 주민들이 회개할 마음이 있거든 저들로 교회를 세우게 하라.” (교리와 성약 58:47-48)

그러므로 내가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이 회개의 날, 곧 백성들이 현재의 상태를 자각하고 그들의 생활을 바꾸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오래 전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직접 주신 계명은 오늘날의 지도자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런고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이 백성 가운데

베 나가서 베드로라 하는 나의 옛 사도처럼 저들에게 고하여”(교성 49:11) 사도 베드로는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순결한 생활을 하고 범법 행위를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함이라”(벰전 2:11-12)

나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생활을 하면서 결혼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많이 읽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결혼하지 않은 채 성생활을 하면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변경시키셨을까요? 아니면 보잘 것 없고 무책임하고 외람된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려 하는 것일까요? 죄란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악마란 오랜 옛날에만 인간의 마음을 점령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기타 다른 성들은 사악한 사람들과 “내가 알아야 할 주가 누구뇨”(모세서 5:16)라고 말하는 가인과 같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찬 사악한 도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도시가 곧 멸망당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웃을 사랑하였으므로 주님께 다음과 같이 간청했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오십이 있을찌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창 18:24) 아브라함이 간청하도록 주께서 승낙하시자 아브라함은 다시 의인 40명, 또는 30명, 20명, 마침내 10명만이라도 있으면 성을 멸하지 않겠느냐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그 성에는 의인 열 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창 18:24-32 참조)

죄악은 계속되었습니다. 성이 죄로 완전히 물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웃고 비

웃었습니다. 범법으로 유명한 소돔은 계속해서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오히려 소돔 백성들은 성에 온 천사들을 해하려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악한 무리들은 천사들을 끌어 내리고 운집하여 문을 부수기까지 하였습니다.(창 19:4-11 참조)

아브라함은 이 성을 구하려고 온갖 애를 썼으나 너무도 음란하고 패역하였기 때문에 구원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향과 불을 비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없어 멸하셨더라.”(창세기 19:24-25)

역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호색 문학, 음란 행위, 동성애, 방탕 등이 세상에 만연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사탄의 날이 다시 돌아왔으며 역사가 반복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이 타락하여 비천하고, 역겹고, 합당하지 않은 행위를 할 때, 우리는 사탄이 그의 손을 이 지상의 모든 사람에게 뻗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게 됩니다. 악이 우리의 세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기에는 충분한 의인이 우리 세대에 없는 것은 아닙니까? 왜 우리는 끊임없이 악과 타협하며 죄를 묵인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나는 6대 가람 거슬러 올라가서 초기의 교회 대관장단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는 여러분에게도 읽어 주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수천년 전에 그의 예언자에게 주셨던 계명이나 구세주 당시의 예언자에게 주셨던 계명이나, 오늘날의 예언자에게 주신 계명이 모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면하는 상황에 따라 적당히 생활하고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는 옛 세대와는 다른 세대이며 이 세

대의 사람들은 보다 많이 교화되었기 때문에 옛 세대를 위한 가르침은 옛 시대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은 수세기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를 존중하며, 가족을 존중하고, 의롭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수천년 동안 내려온 변경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자 회전을 하면서 나는 이러한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의인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하여 어떠한 변화를 감행할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를 행하지 못한다면 바벨론에 닦았던 것과 같이, 혹은 소돔과 고모라에 닦았던 것과 약간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도 재앙이 이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 계속해서 가르쳐야 하겠고, 우리의 자녀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가르쳐야 하며, 우리의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불러 주어야 하고, 결혼 생활이 아름답고 성스러운 상태로 유지되도록 결혼한 부부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고 절실히 느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대회를 마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얻은 간증과 마음의 뜨거움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와 와드와 스테이크와 지부에 전하겠다는 새로운 영적인 자세를 갖추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끝마치면서 나의 간증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우리가 그분이 마련해 놓으신 길에서 탈선할 때, 그분은 심히 슬퍼하시며, 그래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지역 대회

보고

래리 힐러

8월 한 달 동안에 일본, 필리핀, 홍콩, 대만 및 한국에서 성도들을 위한 지역 대회가 열렸습니다. 일본 지역 대회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열렸고, 필리핀 지역 대회는 11, 12일 양일에 걸쳐 열렸습니다. 13, 14일에는 홍콩과 대만이 대륙에서 동시에 대회가 열렸으며, 한국 대회는 15-17일 사흘에 걸쳐 열렸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곳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김볼 대관장님과 총관리 역원의 가르침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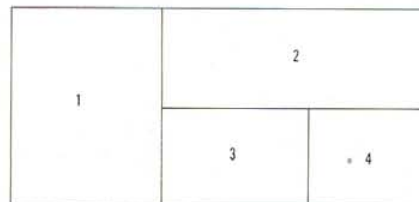
어떤 성도들은 13시간 동안 야간 완행 열차를 타고 서서 와야만 했으며, 이틀동안 배를 타고 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배와 버스로 6일간 1,600킬로미터 이상 여행을 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성

도도 있었고, 키머거리인 성도도 있었습니다. 동반에 의지하여 오거나 휠체어에 앉아 대회에 참석하는 성도도 있었고, 전신 마비가 되어 대회장으로 데리고 온 성도도 있었습니다.

부유한 상인도 있었고 가난한 농부도 있었습니다. 60년 전에 교회에 입교한 회원이 있는가 하면 불과 며칠 전에 침례를 받은 회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어, 영어, 중국어, 광둥어, 한국어를 사용했으며, 동경, 마닐라, 홍콩, 대륙, 서울로 모였습니다. 환경이 다른데도 매우 중요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들이 영적인 양식을 취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기름부음받은 중 특히 주님의 예언자이신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의 말씀을 듣기

사진 설명

1. 1915년에 회원이 된 일본의 나라 형제와 함께 서 계신 김볼 대관장님.
2. 홍콩에서 말씀하시는 롬니 부대 관장님.
3. 대만 대회 합창단.
4. 총관리 역원의 말씀을 통역하는 유능한 통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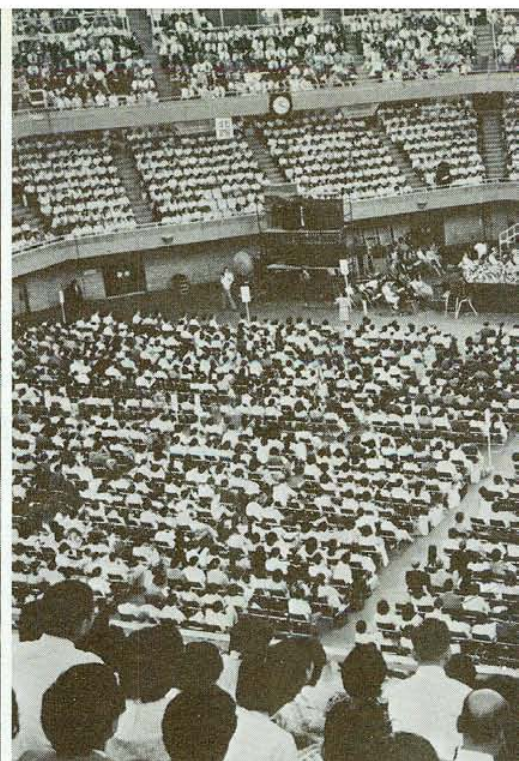


사진 설명

5. 홍콩의 남성 합창단.
6. 마닐라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고마쓰 장로.
7. 일본에서 말씀하시는 실 장로.
8. 합창단을 지휘하는 열성적인 지휘자.
9. 일본 대회에 모인 군중.
10. 홍콩 성도들에게 하늘의 가족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피터슨 감독.
11. 유능한 통역자가 자기 나라의 언어로 총관리 역원의 말씀을 동시 통역하고 있다.
12. 일본 성도에게 가치있는 인생 여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폴 에이치 던 장로.
13. 공항에서 총관리 역원을 맞이하는 성도들.

위해 모였습니다.

김볼 대관장님과 일행인 총관리 역원들은 약 2주동안 25,600킬로미터 이상을 여행해야만 했습니다. 이분들은 91회에 걸쳐 대회 말씀을 전했고 김볼 대관장님은 14회에 걸쳐 말씀을 전했으며 그밖에도 기자 회견과 특별 모임을 통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볼 대관장님을 수행한 총관리 역원과 본부 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롬니 부대관장;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고든 비 헝클리 장로, 마빈 제이 에쉬튼 장로(이상 십이사도); 스티얼링 더블류 실 장로, 제임스 에이 켈리모어 장로, 오 레스리 스톤 장로,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장로, 애드니 와이 고마쓰 장로(이상 십이사도 보조); 폴 에이치 던 장로(칠십인 제일 정원회);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관리 감독관); 데이비드 엠 케네디 형제(대관장단 대표);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일본과 한국에서 개최한 대회의 형식은 다른 곳에서 열린 지역 대회와 똑같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문화의 밤을 가졌습니다. 스테이크와 선교부 회원들이 고유의 민속 음악과 무용을 발표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2회에 걸쳐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외에 토요일 저녁 부모와 25세 이

상 독신 회원을 위한 모임과 25세 이하의 청소년을 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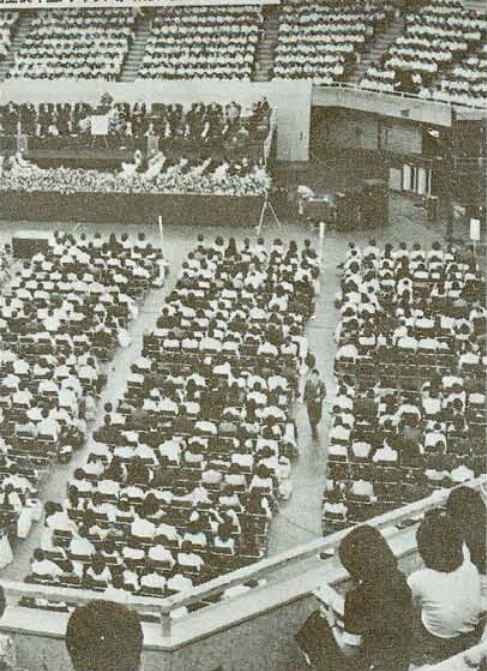
이번에 개최한 대회에 앞서 다른 지역에서 개최한 대회와의 차이점은 일본 대회와 한국 대회 중간에 소규모의 지역 대회가 개최된 점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월요일 저녁에 대회가 시작되었는데 먼저 1시간 동안 대회를 가진 후 문화의 밤이 1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오후 모임과 저녁 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

홍콩과 대만에서는 동시에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총관리 역원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 각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두 곳에는 화요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에 모임이 열렸습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홍콩에서 개최된 첫번 대회를 감리하셨고 다음날 아침 대만의 대북에 비행기편으로 오시어 목요일 모임을 감리하셨습니다. 롬니 부대관장이 대만에서 개최된 첫번 모임을 감리하신 후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편으로 홍콩에 가시어 목요일 저녁 모임을 감리하셨습니다.

이번의 여러 지역 대회를 통해 가장 중요한 일은 김볼 대관장님의 동경 신전 건립에 대한 발표입니다. 대관장님은 동경에서 토요일 아침 첫번째로 갖는 대회의 개회사에서 이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너무도 중요하고

5			10	11	12
6	7	8	9	13	



도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잠시 그들이 부는 말을 들었는지 생각해 보아야만 했습니다. 이윽고 신전 건립의 소식임을 깨달은 회중은 설레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뻐 웃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쁨에 충만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감사한 마음과 기쁨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성도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로 그들의 기쁨과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 중에는 1915년에 교회에 입교한 호지야 나라 형제와 1907년 침례를 받은 다마노 구마카이 자매도 있었습니다. 나라 형제는 신전 건립 소식을 듣자 만면에 웃음을 짓고는 지지를 묻기도 전에 오른손을 높이 들어 지지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나라 형제는 건립 소식에 너무나 큰 기쁨으로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며 “이 자리에 제가 함께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튜 카울리 장로가 신전이 세워질 땅에 선교 본부를 세우고 이를 헌납하던 때를 회고했습니다. 그 당시 카울리 장로는 언젠가는 일본에 신전이 건립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구마카이 자매는 신전 건립 소식을 듣고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오직 놀라움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느낌을 표현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소망은 신전이 건립되어 헌납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일본 지역 대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라 형제나 구마카이 자매처럼 교회에 입교한 지 오래 된 회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까운 곳에 신전이 건립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와이 신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으며, 많은 수의 회원들이 하와이 신전까지 가기 위해 돈을 저축해 놓을 만큼 오래된 회원이 아닙니다. 이제 저축과 희생으로 그들이 자주 다닐 수 있는 신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영원한 가족 단위로 함께 인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일본에 신전을 짓게 되면 이 신전은 아시아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신전이 될 것입니다. 신전 건립 소식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을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때가 이르면 아시아의 다른 여러 나라에도 신전을 세울 것이라는 대관장님의 말씀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신전 건립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충만케 되었으며, 총관리 역원의 말씀을 듣고도 더욱 영감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있어 대회 참석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장거리 여행을 해야 했으며 어떤 성도에게는 어린 아이들을 돌볼 일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여비와 숙박비를 마련키 위해 평소보다 많이 일을 해야만 했으며 부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젊은이들 중에는 비회원인 부모로부터 대회에 참석토록 허락을 받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일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회원은 “우리가 대회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줄곧 준비해왔기 때문에 희생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회에서 것처럼 강하게 성령을 느끼게 된 한 가지 이유는 많은 회원들이 영적으로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나는 이 대회를 맞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경전을 읽었습니다”라고 어떤 형제가 말했습니다.

몇몇 신권 지도자들은 대회 전 수개월 동안보다 대회 후에 교회 출석율과 가정 복음 교육과 십일조 및 헌금이 늘어났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부끄러워하던 사람들이 친지와 친구들에게 교회와 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회원들의 개인적이고 영적인 준비에 더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갖기 위해 많은 물질적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대회 장소 물색 및 준비, 통역 선정 및 훈련, 확장기 장치, 합창단 및 출연자의 조직 및 연습, 대회에 참석키 위해 먼 곳에서 오는 회원들을 위한 숙소 준비, 광고 등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대회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해 각 주요 분야에 수많은 세부 실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성도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실천하고 모든 준비를 갖추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 스테이크 부장은 대회 준비와 문화의 밤을 위해 자진 봉사하겠다는 회원이 너무나 많아서 그들에게 맡길 일을 찾느라고 고심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원들은 대회 준비를 위해 봉사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 성도들을 도우려 했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곳에 사는 성도들은 따로 여비와 숙박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이들 중 많은 성도들이 먼 곳에서 온 성도들에게

숙소와 식사를 제공했으며 그들의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회원들은 그들이 여행할 경우에 필요한 여비를 바쳐 지역 선교사들이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문을 받은 모든 회원은 그들의 준비가 보람있는 것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대회가 열린 나라마다 성도들이 하나로 결속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며, 서로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이같이 굳게 결속할 수 있었습니다. 합창단과 문화의 밤 행사에 참석한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단결심과 형제애가 굳게 심어졌습니다.

모든 대회에서 합창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들은 열의를 갖고 훌륭하게 노래했습니다. 여러 교회의 회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함께 노래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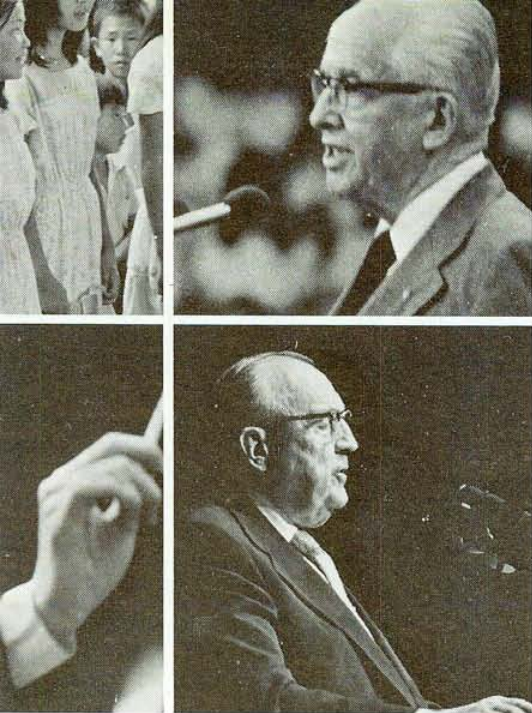
합창단으로 봉사한 어느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찬송가를 보고 노래를 많이 불렀었지만 것처럼 노래를 불러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 목소리와 내 주위에서 들리는 다른 합창단원의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합창단원으로 노래를 하면서 저는 참으로 훌륭한 영적인 경험을 가졌습니다.”

무용과 노래와 연극으로 진행되는

문화의 밤 행사도 훌륭했습니다. 많은 준비와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역력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 출연하는 회원들은 대회 몇 달 전부터 연습했습니다. 오랫동안 연습한 후에 대회 6일전에 대회가 열리는 곳으로 와서 대회까지 매일 최소한 9시간 동안 연습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들은 옥외에서 연습했는데 비가 올 때에도 무용을 계속했습니다.

연습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휴식 시간을 함께 즐기는 동안에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같은 우정은 지부와 와드, 스테이크와 지방부 그리고 선교부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사랑이 싹트기도 하고 약혼까지 한 젊은이도 있습니다. 문화의 밤에 출연한 회원 중에는 무용을 계속해서 대회 후에 함께 무용 발표를 하기로 결정한 회원도 있습니다.

물론 지역 대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참석한 성도들이 받은 대회의 영향입니다. 아시아의 여러 지역 대회를 마친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습니까? 그것을 말하기란 어렵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의롭게 살고 선교사가 되겠다는 결의를 더욱 굳게 가졌습니다. 그들은 비회원 친구들과 친척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교회는 더욱 급속도



로 발전할 것입니다. 실제로 대회에는 많은 구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필리핀의 한 지부장은 자기 지부에서 250명을 대회에 참석시켰는데 그 중 120명이 구도자였습니다.

대회가 청소년들에게 미친 영향은 더욱 컸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에 한 청소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하겠습니다. 순결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 다른 청소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부 대회와 지방 대회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꼭 같은 간증을 가지고 모인 대회에 참석해 보니 저는 교회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 청소년 자매는 “우리는 예언자와 이곳에서 함께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언자와 총관리 역원의 말씀을 듣고 저는 앞으로 더욱 굳건한 신앙으로 살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청소년은 “예언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간증은 더욱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 동안 내 마음속에 성구들이 다시

새롭게 새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청소년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가 되겠다는 나의 소망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김볼 대관장님께서 순결에 대해 말씀하실 때 나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자신을 깨끗이 지키고, 모든 계명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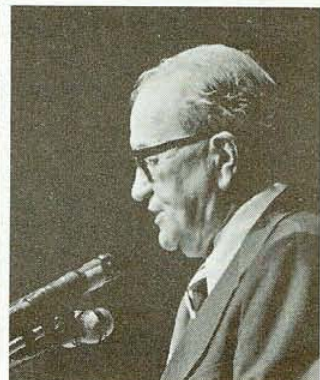
한 가정의 다음과 같은 말은 대회를 마친 성도들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총관리 역원의 훌륭한 말씀은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회원과 비회원이 모두 성령을 느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준비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 강해지기 위해 지역 대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의 교회의 장래는 보다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보람을 찾았으며 간증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더 고속도로 발전하게 되며, 회원수가 증가하며 영성과 성실함이 이 교회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되는 계명을 지키고자 합니다. 주님은 11명의 사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사진 설명

14. 한국 합창단.
15. 대만 합창단.
16. 총관리 역원을 영접하는 한국의 소녀 합창단, 텐더 애플즈.
17. 대만 합창단 지휘자.
18. 일본 성도를 권고하는 벤슨 사도.
19. 마닐라에서 말씀하시는 칼리모 어 장로.
20. 많은 그룹이 문화의 밤에서 공연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부채춤이다.
21. 성도에 대한 김볼 대관장의 사랑은 항상 극진하다.
22. 홍콩 합창단.
23. 마닐라에서 말씀하시는 애쉬튼 장로.

14	15	16	18	20
		17	19	



여러분과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의미없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계명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하라” (막 16:15)이 말씀은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 가운데 합당하고 성실하게 성장하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고 하나님의 사업에 더욱 훌륭한 업적을 쌓아가게 하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관장
일본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

가정은 반석이며 문명의 초석입니다. 이 나라나 다른 어떤 나라도 가정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와 학교는 물론 심지어는 국가라 할지라도 약화되고 타락한 가정으로 인해 무력하게 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의 임무는 서로 도와고 자녀를 도와며 그 후에 이웃과 사회와 나라와 온 세상을 도우는 것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대만 대회
수요일 저녁 모임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형제 자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입교했으며 친구와 동료들을 잃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직업과 교육의 기회를 포기해야만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친구들의 비웃음을 참아 왔고 기꺼이 주님의 제단 앞에서 자신을 희생시켰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말일성도로 불리울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고 성령의 동행을 받을 수 있으며 변함없이 충실할 때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강한 신앙을 가진 충실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고든 비 힝클리 장로
홍콩 대회
수요일 저녁 모임

선교사가 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를 위해 준비하는 형제 자매들과 아직 마음속으로 결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총관리 역원의 한 사람으로서 선교 사업에 종사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가장 값진 체험의 몇 가지를 얻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리 감독단으로 일하면서 많은 훌륭한 일을 경험하게 되지만 선교 지역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데 자기의 시간을 바치는 젊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함으로써 나는 가장 큰 감명을 받고 영적으로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축복이 선교사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나는 보아 왔습니다. 선교사들은 주님 보시기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의 다른 자녀에게 하시지 않는 일을 선교사들을 위해서 하십니다. 선교사들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권세와 권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사업 중 가장 보람있는 일입니다.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
한국 대회
토요일 저녁 청소년 모임

사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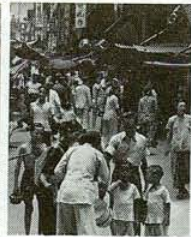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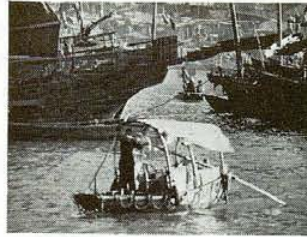
24. 마닐라에서 말씀하시는 버튼 장로.
25. 부모에게 말씀하시는 상호 부조회 본부 회장, 바바라 스미스 자매.

21	22		25
	23	24	

동양의 진주:

홍콩

동양에 불을 뿜는 커다란 용처럼 중국 대륙은 주변의 여러 작은 나라를 덮으면서 동양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 중에 남지나해상의 중화민국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 직할 식민지인 홍콩이다. 홍콩은 “동양의 진주”라고도 알려져 있다. 홍콩섬을 이루고 있는 이 식민지는 본토와 주변의 230여 개의 섬을 모두 합하여 총 면적이 약 640평방킬로미터가 된다. 홍콩은 조그마한 나라이지만 주님의 포도원의



중요한 일부가 된다.

홍콩에는 세 차례나 선교부가 조직되었었다. 최초로 조직되었던 때는 호세아 스타우트 장로, 제임스 루이스 장로, 채프만 던칸 장로가 부름을 받아 미국에서 중국으로 여행해 온 1853년이었다. 그들은 희망에 부풀었으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하게 여겼다. 그러나 이와 같은 희망은 그들이 홍콩에 도착한 지 수주일 후에 사라지게 되었다. “저희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썼다. “오히려 다른 종파의 선교사들이 저희들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 일으켜 주고 있습니다.”

홍콩 섬에서 가졌던 첫번째 '가두 전도 모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나 다른 기독교 종파의 반대로 곧 모이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었다. 세 번의 연속적인 가두 전도 모임이 끝난 후에는 아무도 모이지 않았다. 그 당시 중국에는 개종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신한 스타우트 장로는 다음과 같이 썼다. “저희들은 하나님과 인간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대로 이곳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의 선교 사업을 중단할 것을 결정했습

홍콩

니다.”

이 세 명의 낙심한 선교사들은 홍콩에 도착한 지 4개월만에 그곳을 떠났다. 그들은 단 한 명도 침례주지 못하였다. 단 한 명도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하지 못하였다. 제임스 루이스는 큰 빗을 지고 집에 돌아갔다. 그는 그의 선교 기간을 “내 일생의 극심한 시련”이었다고 말했다. 호세아 스타우트는 고국에 돌아가 보니 아내는 죽어 있었고, 그의 새집은 낡은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었으며, 그의 친척들은 모두 그곳을 떠나 있었다. 아무 의미도 없었던 희생인 것 같아 보이던 그때를 호세아 스타우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의 선교 사업의 결과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만족감을 갖는다. 우리는 달리 전혀 얻을 수 없었던 그 나라와 국민에 대한 지식을 얻었던 것이다.”

주님의 때의 견지에서 볼 때, 홍콩의 주민들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67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새로운 선교부의 시도가 이루어졌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장로가 그의 동반자, 휴 제이 캐는 장로와 함께 세계를 여행하였다. 몇 주간의 여행 끝에 그들은 일본, 한국, 만주를 거쳐 북경에 도착하였다. 1921년 1월 9일, 일요일 아침, 맥케이 장로는 전에는 황제의 집이었던 “금지된 성”안에 있는 정원에서 헌납의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결국 그 선교부가 기능을 시작한 때는 그로부터 28년이 지난 후였다. 매튜 카울리 장로가 홍콩을 방문했다. 그 결과 선교사들이 홍콩에 파견되었다. 1949년 7월 14일에 일어난 일을 매튜 카울리 장로는 같은 해 후반기에 있었던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간단한 예배 의식을 가져 공식적으로 선교부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면서 차례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4억 6천 5백만의 주민이 거하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동포를 구원의 길로 오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게 해 달라

고 간구하던 헨리 아키 형제의 기도를 잊을 수 없습니다. 4억 6천 5백만 인구중에서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니 얼마나 이상합니까! 사랑하는 중국 형제가 책임을 느끼고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할 때처럼 하나님의 신권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때는 없었습니다.”

일본과 하와이를 관리하는 선교부장이었던 힐튼 에이 로버트슨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부장단 하에 선교부가 조직되었다. 두 번째 복음 전파 시도는 첫번째보다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어 여러 명의 침례자도 있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다시 선교부는 문을 닫게 되었다. 이때는 선교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구도자들을 두고 떠나야만 했었다.

세 번째 선교부는 1955년에 시작되었다. 당시에 에이치 그랜트 히튼 선교부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개종자를 데려 오느냐는 그들을 함당하게 다루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개종자들은 열성적인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어느 형제는 침례받은 후에 그가 새로이 발견한 진리를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서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을 모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선교사에게 그들을 가르치도록 소개하였다. 선교사들이 갔을 때, 선교사들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알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라, 회원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을 배우려고 모였다는 것을 알고는 기뻐 놀랐다. 그들을 선교사에게 소개한 그 형제에게 굳건한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으로 성신의 증거를 받은 것이었다.

선교사들이 만나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란민들이었다. 히튼 선교부장은 이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지방의 피란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백성이 모이리라는 예언의 약속은 가공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선교사들은 극동 여러 곳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있

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갖고 함께 모인 것입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피난 이유는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과 피난해 와서 복음의 간증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피난하여 와서 살고있는 환경과 처지가 새로운 의미와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피난처가 바로 시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요즈음은 많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교회로 불러 들고 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인다. 사실상, 홍콩의 개종자의 수는 실로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들을 효율적으로 통합시키느냐가 큰 문제로 되고 있다.

홍콩에는 추방, 가족의 뿔박, 이민으로 인한 회원 손실 등 교회 회원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직면하고 이겨냄으로써 홍콩의 회원은 교회를 계속 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홍콩에는 13개 지부에 4천명의 회원이 있다. 예배당 건물은 7개로, 2개는 표준 예배당이고 2개는 개조한 건물이며, 3개는 다른 건물의 맨 윗층을 빌린 것이다. 또한 지방부 센터를 짓기 위하여 매지를 매립하였다. 전에는 미국인 선교사들이 지부와 지방부를 이끌었으나 이제는 완전히 중국인 회원이 이끌고 있다. 현재 모든 지부마다 장로 정원회가 있다. 17명의 중국인 복음 선교사와 여러 명의 지방부 선교사들이 홍콩에서 봉사하고 있다.

홍콩을 떠나려는 태도도 역시 바뀌어지고 있다. 많은 회원이 느끼는 점을 어떤 형제는 다음과 같은 말로 대변하였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인입니다. 저는 이 홍콩에서 머물러서 우리 동족을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홍콩의 교회가 회원 수에서나 힘에서나 강하게 발전되어 감에 따라, 1970년 에즈라 매프트 벤슨 장로가 하신 말씀이 실현되어 가고 있다. 그는 이 때는 이 곳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받게 될 때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때가 이르러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1 1956년 6월 초 어느 따스한 날, 남극동 선교부의 네 장로는 “아는 바라곤 나쁜 소식뿐인” 대만을 향해 작은 배로 홍콩항을 떠났다.

“그러나, ” 웰든 제이 키친 장로는 이렇게 보고했다. “대만을 처음 보자 우리는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푸른 물위로 가파지른 듯이 서 있는 험준한 산 봉우리는 마치 파란 하늘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가파른 산 봉우리에도 불구하고 마른 땅은 거의 눈에 띄이지 않고 어디나 섬 전체가 질푸른 나뭇잎으로 싸여 있는 곳입니다.”

이리하여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의 “포모사”로 알려져 있는 대만에서의

선교 사업은 시작되었다. 네 장로는 완전히 격리당하지는 않았다. 미군 그룹이 조직되었으나 중국인이나 대만인은 아무도 없었다. 장로들은 이미 9개월간 중국 관리들이 사용하는 관화를 배웠었다.

새로운 나라에 복음을 전파할 때는 으레 많은 시련이 따르거 마련이다. 4명의 선교사와 10월에 다시 그들과 합류된 4명의 선교사들은 중국어로 번역된 소책자를 거의 갖고 있지 못했다. 이때는 중국어 물문경이 출판되기 10년 전이었다. (구도자들에게는 신약을 읽게 했다) 교회에 대하여 정부측에서는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으나, 일반 다른 중파에서는 즉각적으로 그들의 신자들에게 물론 선교사

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경고장을 돌렸다. 이러한 행위는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어 나쁜 영향보다는 오히려 좋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라고 장로들은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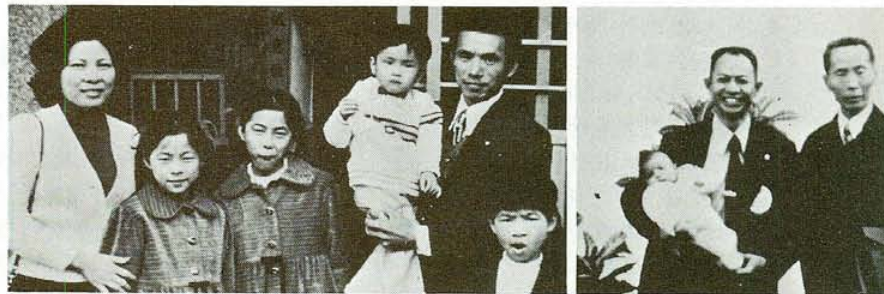
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거주하고 모임을 가질 장소를 찾기도 어려웠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모임을 선교사 아파트에서 대개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1957년 반 미국인 폭동이 일어나자 장로들은 미국 구내에 며칠 동안 머물러야 했다. 장로들은 질병에 대하여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되었으며, 역시 아직도 언어의 장벽은 두터웠다.

“모든 일은 내게 경험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교성 122 : 7) 것이니라는 말씀에 완전히 부합되었다. 그러나 1957년 말경, 침례자의 수는 거의 50명에 달했다. 1958년에는 120명이 더 침례받았으며, 6개 도시에서 31명의 선교사가 봉사하였다. 1959년 마크 이 피터슨 장로가 대만을 방문하여 —이것은 최초의 총관리 역원의 방문이었다—대만의 각 지역을 복음 선교지로 헌납하였다. (이미 전체적으로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장로께서 대만을 헌납하신 바 있었다.) 1959년

가파른 봉우리와 강한 신앙:

대만



말경 그러니까 선교 사업이 시작된 지 3년 반만에 대만에는 8개의 지부가 조직되었으며, 45명의 선교사 중에 14명이 중국인 선교사였다.

교회는 60년대에 계속 발전하여 대북과 까오슝 두 곳에 교회 자체 건물을 지었으며, 물문경 번역이 완성되었다. 지도력 개발에 역점을 두어 1965년에는 16개 지부 중 11개 지부를 중국인 성도가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1971년 1월 11일, 남극동 선교부에서 전에 선교사로 봉사했던 말란 알

대만

잭슨 장로가 대만 대북 선교부 초대 선교부장으로 대만에 도착했다. 현재는 선교부 산하에 3개의 지방부와 하나의 미군 지방부가 있으며, 7천명의 회원이 30개의 지부에 소속되어 있다. 약 200명의 선교사들이 토마스 피 널슨 부장의 관리 하에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현재 예배당은 대북, 타이쑹, 까오슝에 있으며, 타이퉁에 현재 건축중이다. 대만에는 교회 잡지인 “성도의 소리”가 있다. 신전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국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렵지만 성도들은 천여년 전 조상의 기록까지 조사, 탐구하고 있다. 중국인 형제인 조셉 완 형제를 원장으로 모시고 있는 신학 연구원은 3개 지방부에 모두 조직되어 약 420명의 등록생을 확보하고 있다.

왜 대만인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차이 지부장이었던 창 쟁 상 형제는 대만 대북 선교부 월간 잡지에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였다:

“중국은 반만년의 문화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중국인들은 아직도 하늘을 숭배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인은 지고한 신의 형상을 지닌 이 위대한 하늘의 힘이 온 천하 우주를 다스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음력 정월 아흐렛날 천신에게 4가지 신선한 과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와 같이 대만인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완전하지마는 하늘에 있는 신에 대한 믿음은 중국의 전통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중국 문화도 역시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고대 중국은 동양에서 가장 위대한 문화를 누렸습니다. 여러 세대의 황제들이 세계 각지에서 오는 방문자들을 환영하였습니다. 수백년 동안 중국은 온갖 무역상인, 각국의 국민, 모든 종교인들을 맞아들여 그들의 좋은 문화를 중국인에게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유로운 문화 교류로 인하여 많은 중국인들이 교

화되었으며,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점차로 중국인들은 외국의 문화와 종교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복음은 외국인들 통하여 들어 온 다른 어떤 문화보다도 좋은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 온 많은 중국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중국 사회는 가족, 국가,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인은 매우 강한 국가 의식과 정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정서에 크게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또한 사랑과 훌륭한 정서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하여 매우 우호적인 것입니다.

“또 흥미있는 것은 중국인의 풍속이 고대 이스라엘의 풍속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중국인은 선교사들로부터 처음으로 복음을 들을 때,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들은 또한 조상을 존경하며 숭배합니다. 중국인은 조상을 모시는 집을 짓고 가족의 족보를 작성합니다. 중국인들은 족보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민족입니다. 따라서 나는 4000년 전 조상의 기록까지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대만 선교사, 1673년 7월)

복음을 받아들인 극적인 예를 케리아오 지부에서 볼 수 있다. 왕 티엔테 형제는 18년 동안 정식으로 일정한 교단에 가입하지 않은 채, 케리아오에서 작은 기독교인 집단에서 목사로 일하고 있었다. 왕 형제의 딸이 선교사를 만났을 때, 딸은 그들의 메시지가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자기의 아버지가 가르쳤던 것—십일조, 담배와 술을 삼가하는 것, 매일의 기도, 성경 공부, 침수로써의 침례 등이 모두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메시지를 아버지에게 전해 드렸다. 그후 얼마 안되어 1673년 4월 1일 그와 그의 가족이 모두 침례를 받았다. 그날 왕 형제는 그의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18년 동안 나는 여러분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는 침례를 줄 권능이 없었습니다. 복음은 회복되었습니다. 신권이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나를 따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해 동안 나를 목자처럼 신뢰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을 침례의 물가로 인도하겠습니다.” 같은 날 50명의 교우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작은 예배당은 우리 교회로 변했으며, 얼마 후에 왕 형제는 신권 성임을 받고 지부장으로 성별되었습니다.

중국의 문화는 대만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며 교회의 급속한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유교, 도교, 불교는 기독교와 함께 가장 영향력이 큰 종교로 되어 있다. 선교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 동안 정식으로 종교에 가입한 백분율은 2%에서 5%로 늘었다.

대만인의 생활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정치적인 위치이다. 1646년 이후, 대만은 중국 본토를 다스릴 권리를 주장하는 중국의 국민 정부의 요람이 되어 왔다. 그당시 중공이 중국 본토를 다스렸기 때문에 국민주의자는 대만에 정부를 세웠다. 1671년 국민주의자들이 유엔에서 탈퇴당하였으며, 그 대신 중공이 유엔에 가입하게 되었다. 1646년의 위기 동안 정부를 이끌어 왔던 장 개서 총통은 금년 4월 서거하실 때까지 계속 나라를 이끌어 왔다.

문화 및 정치 문제가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큰 문제이다. 이 외에도 초기 선교사들이 당면했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들이 많다.

그러나 대만 성도들은 높은 목표, 즉 보다 강한 지도력, 스테이크 조직, 신전 사업, 활동 촉진, 약 1천 6백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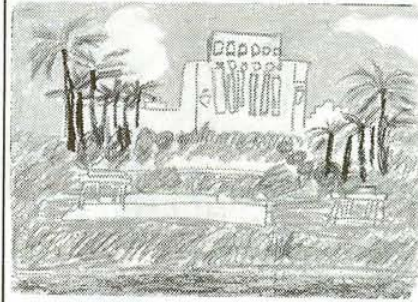
창 쟁 상 형제의 태도는 대만 성도의 미래관을 대표해 준다: “대만의 선교 사업은 항상 번창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대만의 교회를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대만에 있는 선교사와 회원이 모두 강한 신앙을 가지고 인내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히로가주 시부야 아사코 가쥬야마



야요이 오까무라 긴야 가사오



다카시 아만다

도카요 호소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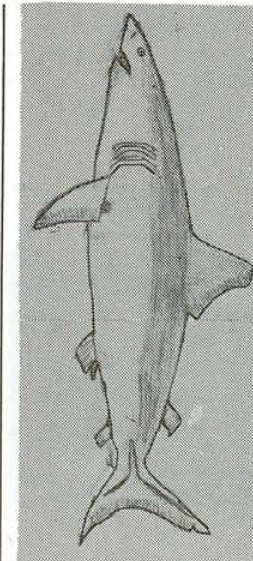
다카야게 사사시

기요 호소가와

모사도시 가사이

미나에 오까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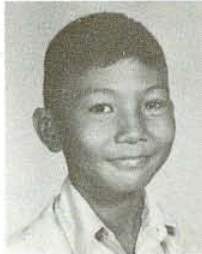
히로시이 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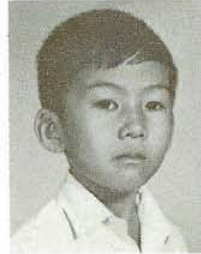
필리핀의 친구

필리핀 공화국의 기후는 언제나 따뜻하며 나무는 1년 내내 푸르고 어린이들은 외투를 입는 일이 없고 눈을 보지 못한다.

필리핀의 대부분의 어린이는 대가족의 가정에서 자라며 한 가정의 자녀는 대개 8-9명이다. 한 가족이 조그만 집에서 함께 살며 이같은 여러 가정이 모여 바리오(마을)를 이룬다. 필리핀의 대부분의 가정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른다. 농부는 부유한 생활을 하며 전 가족이 들에 나가 함께 일을 한다. 어린이들도 오랫동안 허리를 굽히고 일을 하는 것 즉 모판에 심은 모를 물이 가득 찬 논에 옮겨 심어 후에 벼가 익어 쌀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고 있다.



버논 필로벨로



에드셀 필로벨로



라본노 잠프



가넷트 라미레즈



조비타 사리나스

로우데즈 사바



제미 라미레즈

레오닐로 라미레즈

필리핀에는 14년 전에 최초로 선교사가 복음을 전파한 이래로 2만명이 교회 회원이 되었다. 이들 중 대부분이 마닐라에서 살고 있지만 교회의 지부와 소 지역이 필리핀 전역에 퍼져 있다.

필리핀의 말일성도 어린이들은 초등학교와 주일학교에 나간다. 물론 가정은 월요일 밤에 가정에서 가정의 밤을 가지며 어린이들은 이 시간의 공과를 도우는 차례를 손꼽아 기다린다.

필리핀은 각 지역마다 언어가 달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지방의 말을 배워야 한다. 교회의 어린이들은 대부분이 영어를 사용하며 주일학교와 초등학교 공과도 대개 영어로 가르친다.



알빈 림



미찌 림



미셀린 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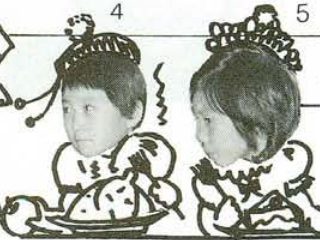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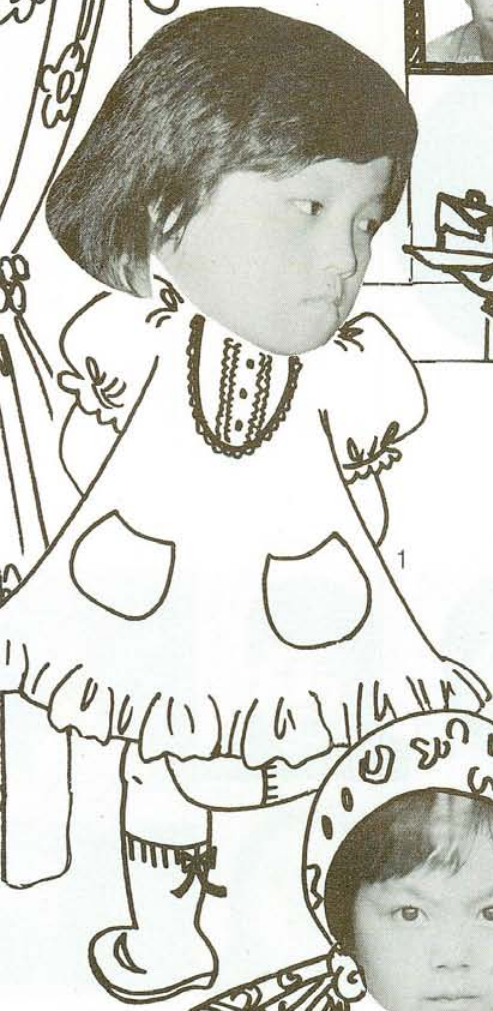
애버웰 림



마이린 림



앵구스차 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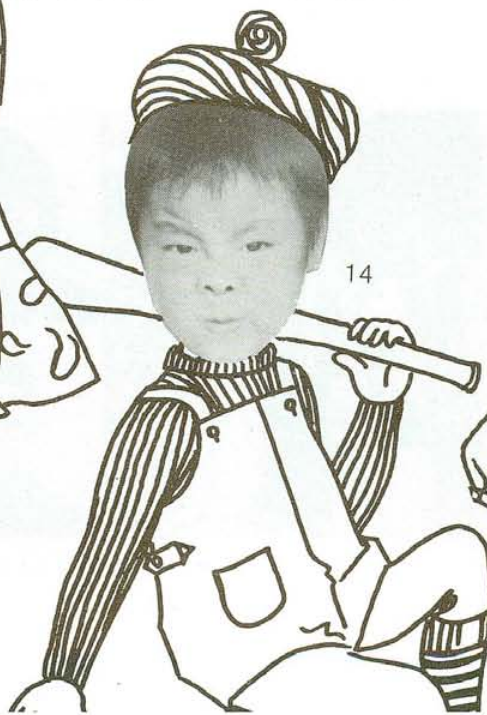


홍콩의 친구



- 1 코우 차우 풍
- 2 숨 양 칙
- 3 오 영 치 광
- 4 응 파우 예
- 5 엘 막 캄 인
- 6 차우 카 케 칭
- 7 차우 킴 칭
- 8 차우 카 파 밍
- 9 오 영 치 밍
- 10 왕 슈 밍

- 11 오 영 치 광
- 12 차우 카 예
- 13 코우 차우 풍
- 14 차우 킴 칭





한 보희

한국의 친구



왼쪽부터: 이 경지, 이 병열,
이 경혜, 이 경은

최 미경

이 경은

김 미숙

박 철승



홍 지연

남 미현

강 순구

최 환영

김 태지

최 희명

박 효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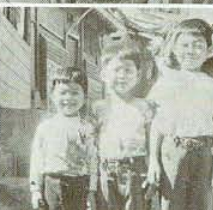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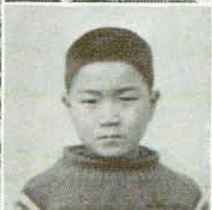
박 철성

김 석주

이 영순

박 중진

왼쪽부터: 박 영숙, 박 승



박 평주

박 지정

이 학인

왼쪽부터: 박 노열,
박 찬규, 박 신규

최 진형



대만의 친구

“제 머리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추억은 초등협회를 다니던 즐거웠던 나날들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들었고, 즐거운 노래를 불렀으며, 주님을 찬양하는 훌륭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제가 초등협회를 졸업하면서 졸업 증서와 불꽃반기를 받았을 때, 제 가슴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첸 마이**

“대만의 어린이들은 학교 생활이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쉴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휴일이면 아이들은 낚시, 등산, 수영, 장기 등을 즐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불교 신자입니다. 명절에는 종이 돈을 태우고 폭죽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하면 악귀가 물러가고 행운이 온다는 풍습 때문입니다.”—**류 첸첸**

“세월은 참으로 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들어 간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경전을 공부하여 복음을 더 잘 알아야겠습니다.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참된 교회임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

명을 지키고 순결한 생활을 하며 교회에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린 웨이 웨이**

“저의 가족은 대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활동 회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정 생활은 교회 활동과 분리되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참된 교회를 주시고, 저희들이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 화상**

“초등협회는 제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의 초등협회 교사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초등협회에서 많은 것을 훈련받았고 간증을 키웠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압니다.”
—**톰 차치**

“저희 가족은 모두 교회 회원입니다.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압니다. 저는 또한 나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가족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리 만첸**

친구가 친구에게



애드니 와이 고마쯔 장로
십이사도 보조

훌륭한 아들을 얻은 나의 어머니

지 금으로부터 34년 전, 내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때, 나는 처음으로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상향회에 초대하여 농구팀에 끼워 주었습니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농구가 재미있어서 상향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후에 나는 주일학교에, 그다음에는 성찬식에 참석하였습니다.

1년 이상을 교회에 나가면서 선교사와 함께 복음을 공부하고, 요셉 스미스의 첫번 시현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나서 나는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침례를 받기로 혼자 약속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홀어머니에게 침례를 받게 허락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왜 우시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방금 또 아들 하나를 잃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홀몸이 되신 후에 어머니는 나의 형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아들 하나를 기독교 교회로 잃으셨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임종시에 아버지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 훌륭한 불교 신자가 되게 하겠노라고 약속하셨었다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내가 선교사들과 만나게 된 때부터 나는 계속 발전하게 되었으

며, 그들로부터 좋은 것만을 배웠다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내게 침례반도록 허락만 해 주신다면, 그리고 후에 나의 행동이 어머니를 당황하게 하거나 부끄럽게 하여 어머니가 교회를 그만두라고 하신다면 어머니의 말씀에 복종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어머니와 가정의 일을 잘 돕고 형제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된다면, “교회에 계속 나가도록 허락해 주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교회에서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나야 했던 때가 없었고 한 번도 나의 행동으로 어머니를 걱정시켜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선교사들이 가르친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고, 나 스스로 원리를 공부할 때, 나는 나의 앞날은 내가 결코 걱정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나는 침례를 받은 후 항상 복음의 원리를 실생활에 실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나는 항상 마태복음에 기록된 다음 성구를 즐겨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아빠 : “애야, 좀 큰 소리로 기도하려므나, 중얼거리면 어디 알아 들을 수 있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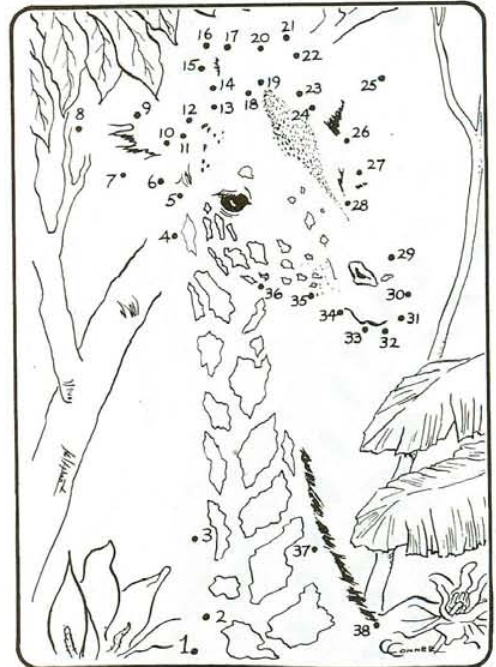
딸 : “못알아들으셔도 돼요, 아빠한테 이야기한 건 아니니까요.”



딕 브라운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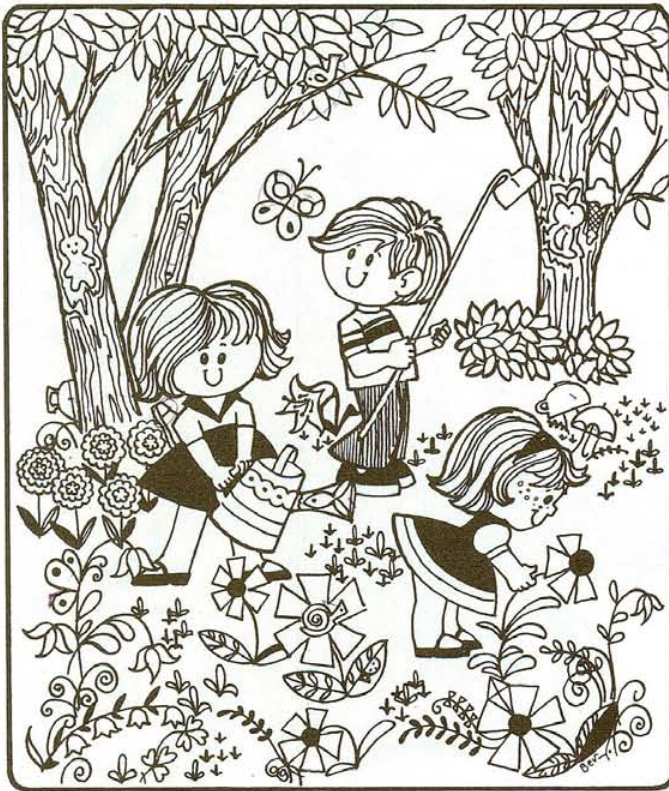


심심풀이



점잇기

이 동물은 높은 나무에 기어 올라 가지 않고도 나뭇잎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숨은 그림 비벌리 존스톤

이 정원에는 여러 가지가 숨겨 있습니다. 한번 찾아 보세요. 토끼, 연필, 안경, 새, 오리, 아이스크림 콘, 컵, 우산, 무당벌레, 달팽이, 구두, 나비, 다리미, 물고기, 연.





딱정벌레 여섯 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찾아서 색칠
을 해 보세요.



해뜨는 나라에 비친 복음의 빛:

일본

“해 뜨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알려져 있는 열도를 일컫는 많은 시의 구절중의 하나이다. 행복한 가족이 서로 손을 잡은 듯이 이어진 이 열도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을 떠받고 있다. 이 조그마한 열도가 곧 사반세기 전 원자폭탄의 잿더미에서 재기하여 세계 속의 강대국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는 일본이다.

1948년 이 땅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다시 선교 사업을 시작한 후에 이룩한 역사보다 전후 일본의 개혁과 부흥을 잘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식될 무렵 교회는 1924년 이후 일본에서 고립되어 있었던 모든 회원들과 거의 접촉이 끊겼다. 이때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은 “호전되는 기미가 보일 때”까지 일본에서의 복음 전파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 호전의 기미는 전쟁이 종식되면서 차츰 보이기 시작



일본

했다. 선교부가 문을 닫기 전 23년 동안 174명의 침례자가 나왔다. 선교부가 다시 문을 연 지 27년만에 회원 수는 2만 5천이 되었고, 6개의 선교부와 3개의 스테이크에서는 매년 평균 3천명에게 침례를 주고 있다.

일본이 이처럼 단기간 동안에 원상 복구할 수 있었던 기적과 앞으로 발전할 일본의 잠재력을 이해하려면,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는 산업과 경제적인 부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의 특성을 관찰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종과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서 일본인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힘을 이해하려면, 로마 제국이 그 종말을 고하던 당시의 한창 번성하고 있었던 문화에 깊숙이 젖어 있는 일본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온대 지역의 아시아 계절풍 지역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일본의 국토는 359,846평방 킬로미터이며 인구는 약 1억 1천만명이나 된다. 일본은 호수, 화산, 넓고 좁은 강, 습한 계단식 논 등이 있는 산악 지대이며,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는 산에는 소나무와 히말라야 삼목의 삼림 속에 있다는 자연신을 숭배하기 위한 사당으로 덮여 있다. 또한 꽃밭과 사시사철 눈으로 모자를 쓰고 있는 후지산은 일본을 대표하고 있다. 일본은 4개의 커다란 섬...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과 수천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열도로 이루어져 있다. 기후는 홋카이도의 북부 기후로부터 규슈와 오키나와의 아열대성 기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인은 일본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게 되었으며, 외국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예가 비교적 드물다. 이와 같이 세계의 다른 나라로부터 격리된 지리적인 조건은 이들 국민에게 단결심을 심어 주었다.

이와 같이 격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일본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일본에게 문자와 선불교를 가져다 주었다. 이 선불교는 인도에서 유래된 종교 철학으로서 한국을 통하여 일본으로 전해졌다.

자신과 우주를 융화시키는 고요한 내성(자기 관찰)을 강조하는 이 선사상은 점차로 일본인의 모든 생활, 즉 미술, 문학, 건축, 음악, 사회, 도덕, 관습 등에 영향을 주어 일본인의 가장 세련된 생활

방식의 표현이 되었다. 예를 들어 다도는 인간을 우주와 융화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예법이다. 고요하게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참된 자아를 깨닫게 된다.

이와 같은 우주와의 융화 사상은 정원에도 잘 나타나 있다. 전편이 미담이로 되어 있는 일본식 건축은 그곳에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시사철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게 해 준다. 일본식 정원은 소규모의 우주를 상징한다. 정원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진다. 바위, 연못, 모래, 나무, 돌 등은 산, 바다, 나무, 평야를 상징한다. 정원에는 꽃은 거의 없다. 색깔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초록의 구성과 그늘에서 조화와 다양성을 발견한다.

시적인 조화는 일본 문학에서, 심지어는 일본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 빌어 온 간지라는 모자의 형태에서 일본인은 3가지 문자 체계를 발전시켰으니, 곧 간지, 히라가나, 그리고 가다가나가 그것이다. 글씨를 잘 쓰려면 달필가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화가도 되어야 한다. 글씨와 그림이 한 작품 안에 혼합됨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예술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보여 준다.

일본인의 가슴에 회부된 복음의 교리를 심어 주겠다는 임무를 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언어이다. 교회의 첫번째 선교사들이 일본의 해안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직면하게 된 많은 장애 가운데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이 언어 문제였을 것이다. 초기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의무에 대한 희생과 헌신, 역경에 대한 용기, 좌절에 대한 인내심을 소재로 삼은 이야기이다.

초기 선교사들은 일본의 언어와 풍습에 익숙하려면 적어도 5년은 있어야 했다. 23년간의 첫번째 일본 선교부 시절에는 88명의 선교사들이 봉사했다. 이것은 넓은 지역에 비해 너무도 적은 수였다. 많은 선교사들은 남달리 헌신적인 열의를 보였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 이외에도 선교사들은 모욕과 위협을 받았으며, 많은 곳에서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소수의 회원만이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다.

1901년 9월 1일 일요일 아침 엘마 오 테일러 장로와 함께 동아시아에서의 첫번째 복음 전파를 시작하였다. 그는 이 장로들과 함께 요코하마 남부에 있는 언덕 등성이 숲속으로 들어 갔다. 그곳에서 그는 일본을 “진리를 선포할 곳”으로 헌납하였다. 어린 테일러 장로의 일지에는 그랜트

장로의 헌납 기도를 포함하여 그때의 감동적이고 영적인 경험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그가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힘있게 임하였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친사가 바로 곁에 계심을 느꼈으니, 이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전에 한 번도 그와 같은 열렬한 기도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 기도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내 뼈속 깊이 파고 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결의와 신앙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은 일본인들과의 의사 소통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설명해 주는 일본어 소책자 한 권도 없었다. 선교사들은 일본 가정에서 유숙하면서 매일 일본어를 사용하려 노력했으며, 그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선교사들 중에서 테일러 장로는 특히 일본어를 빨리 익혔다. 그는 찬송가 두 곡을 번역했는데 이 찬송가는 선교부가 문을 연 지 1년 후에 혼조와 동경에서 시작된 주일학교에서 사용되었다. 일본인은 노래를 좋아한다. 시온의 노래는 교회에 대한 관심을 줄 뿐 아니라 개종자들로 하여금 충실한 회원이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904년 엘마 테일러 장로는 물문경 번역이라는 엄청난 사업을 지명받았다. 이때 테일러 장로는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는 일본 국민을 위해 귀중한 물문경 번역판을 내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6년 동안 피나는 노력 끝에 물문경 번역은 완성되었다. 4개의 완전한 원고가 나왔다. 하나는 로마지(로마 문자)로 2,100페이지에 달했으며, 세 권은 일본어 원고였는데 모두 합쳐서 11,000페이지나 되었다. 이 물문경이 출판되어 나온 때는 1909년 10월이었다.

선교부의 문을 연 때로부터 23년째 되던 해, 당시 대판장이셨던 히버 제이 그랜트 대판장님은 좀더 사태가 호전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선교부를 닫기로 결정하셨다. 1924년 8월에 선교부가 문을 닫게 되었을 때 잠정적인 조치가 취해졌으므로 누구든지 전반적으로 상당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물문경은 번역되어 출판되었으며, 소수의 용기있는 일본인은 물문경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겠다는 힘을 얻었다. 선교사들을 환송하는 소수의 일본 성도들 가운데 슬픈 마음으로 서 있었던 개종자

들 중에는 후지와 나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후에 이 그룹의 관리 장로로 임명되었다. 그는 그후 어두운 시대를 통하여 줄곧 강한 신앙을 간직했을 뿐 아니라 현재 동경 스테이크의 축복사로 봉사하고 있다.

그당시 일본인들이 교회에 가입하게 되었던 기적을 이해하려면, 정통과 문화의 압력도 이해해야만 한다. 일례를 들면, 지혜의 말씀이란 일본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는 커녕 이해하기조차도 극히 어려운 문제였다. 손님이 오셨을 때 차를 대접하지 않거나, 손님으로 갔을 때 차 대접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예의범절(일본에서는 상당히 이를 중요시 함)에 어긋나는 것이다. 쌀로 빚은 술 삭게를 마시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술은 가족의 제사, 친목회, 명절에 으레 상에 오르고 마셔야 하는 것이다. 일본인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의식은 일본인의 종교적인 생활 방식과 직결되어 있으며, 은근한 미덕을 나타내 주는 의식이다.

그러나 일본인에게 친투하기 가장 힘든 장벽은 황제를 하나의 신으로 모시는 일

본인의 충성심이였다. 이러한 사상은 지존하신 그리스도 사상과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었다. 군주(황제)에게 죽도록 충성한다는 신념은 수세기 동안 일본 사회를 지배해 온 사상의 하나였다.

이와 같은 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개종자들이 선교사와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으로부터 단절된 완전히 고립된 24년 동안 계속 강한 신앙을 지켜 왔다는 것은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한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본에서의 선교 사업이 중단된 지 거의 13년 후, 그랜트 대관장님은 하와이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위해 선교부를 조직했다. 1935년, 오아후 스테이크에 일본 지부가 조직되었다.

일본군이 미군 기지인 진주만을 공격했을 당시, 하와이 선교부장이던 제이 시젠슨 부장은 선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진주만 공격의 일로 일본인을 미워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선량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일본 지도자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강한 영향력을 미치며 일본으로 전파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와이에 있는 일본인을 사랑하듯이 일본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일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부지불식간에 일본에 다시 교회를 세울 기초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가까운 장래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젠슨 선교부장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현재 일본의 선교부를 관리하고 있는 6명의 선교부장 중에서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젠슨 선교부장 재임 기간에 교회로 개종한 일본인 하와이 교포이다. 일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진두에서 힘을 쓴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와이에서 개종한 사람이거나 일본-하와이 선교부 당시에 선교사로 봉사한 사람들이다.

제이 시젠슨 선교부장에 이어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은 에드워드 엘 클리숄드 선교부장은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식된 후



일본

에 일본에 선교부를 열었다. 그와 함께 봉사한 사람은 엘빈 에이 위니그 형제로, 하와이에서 선교사와 선교부장으로 봉사했던 사람이다. 미국 주둔군에서 중군하고 있던 물몬의 지도자들은 이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눔으로써 길을 예비해 놓았으며, “암흑기”라고 부르는 시절 동안 교회의 빛이 다시 비치기를 고대하던 성도들을 만남으로써 이미 길을 예비해 놓고 있었다.

선교 사업도 미군 물몬 병사들로부터 새로이 시작되었다. 불가에서 몸을 녹이려는 청을 받은 미군 병사 한 명은 흥차를 마시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일본인 화학자요 학교 교사인 다쓰이 사토에게 지혜의 말씀을 설명하여 주었다. 사토는 후에 전후 최초의 개종자가 되었으며, 물몬경 개정판,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기타 중요한 서적의 번역자가 되었다. 현재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보이드 케이 패커라는 군인 형제는 사토 자매에게 침례를 주었다.

1948년 3월, 클리숄드 선교부장이 동경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목적으로 일부만의 파괴된 전 후생부 장관의 집을 이상적인 선교 본부 대지로 매입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전에는 일본 선교부가 자체 건물을 갖고 있지 못했으므로 영구적인 소속감을 갖지 못했었다. 초기 성도들은 자체 건물을 몹시 갖고 싶어했으며, 1924년 선교부가 철수하자 이 영구성의 결여를 특별한 시련으로 느꼈었다. 새로운 선교부장이 곧 대지를 매입한 것은 일본인에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이곳에 정주하여, 다시는 결코 철수하지 않으리라!”고 말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배튜 카울리 장로는 다시 찾은 건물을 헌납하면서 “많은 교회 건물과 신전도 이곳에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1948년 6월에 첫번째 5명의 선교사가 도착했다. 첫해가 끝날 무렵 선교사는 17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6명의 하와이 교포 일본인도 있었다. 첫번째 선교기간의 절망적인 반응에 반해, 전후 일본에서 교회가 성공을 거두며 발전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본인의 정서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일본인은 심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생활을 재건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으며,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개종자인 도시오 도시자와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느낌을 요약했다: “1948년 5월 15일 일본이 항복하자, 일본은 불멸하리라는 나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생각했던 내게 정신적인 전환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었습니다. 확신을 잃은 나는 사실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일본 선조들이 그랬듯이 영적으로 눈을 뜨기 위하여 여러 종교에 대해 공부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어느날 도시오는 길에서 물몬 선교사를 만났다. 이들의 정신, 예의, 메시지는 이상하게도 그의 관심을 크게 끌었다.

“무언가를 찾고자 갈망하던 나는 선교사와 그들이 인도하는 토론으로 매혹되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에 뛰어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나는 물몬경을 중심으로 선교사의 집에서, 또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이성로나 감정으로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후 수년 동안 일본을 방문하는 총관리 역원은 일본 성도는 아시아에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예언을 표명하였었다. 현재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예언이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있다는 증거의 하나로 일본 성도들의 하와이 신전 여행을 들 수 있다. 1965년 7월 드웨이 앤더슨 선교부장의 인도로 166명 일본 회원들은 첫번째 하와이 신전 여행을 하였다. 그곳에서 모든 의식은 일본어로 진행되었다. 그후로 매년 일본에서는 하와이 신전 여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본 성도들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가고 있다.

또 특기할 만한 점은 1970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 엑스포 '70에서 물몬관을 개관한 것이었다. 약 6백만의 일본인들이 이곳을 방문했으며 그 결과 선교사들이 수년 동안 찾을 수 있었던 구도자의 수보다 더 많은 수의 구도자를 찾을 수 있었다.

물몬관 개관일에 아시아의 첫번째 스테이크가 동경에 조직되었다. 며칠 후에 1968년에 이미 첫번으로 분리되었던 일본 선교부가 다시 나뉘어져 두 개의 새로운

선교부를 조직하게 되었다. 2년 후 1972년 9월에 두 번째 스테이크가 오사카에 조직되었다. 그리고 1974년 10월, 동경 스테이크는 둘로 나뉘어져 요코하마에 새로운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다. 그러는 동안에 일본 중앙 선교부와 일본 동 선교부는 각기 둘로 나뉘어져 두 개의 새로운 선교부가 조직되었다.

선교부 발전에 맞춰 교회 프로그램이 완전하게 실행되었으며 일본인 지도자들이 충분히 배출되기에 이르렀다. 일본 신학 연구원은 일본인 관리자를 갖고 있다. 십이사도 지역 대표인 간 와다나베 형제는 일본의 최초의 일본인 선교부장이었으며, 현재는 동경에 본부를 두고 있는 동남아 담당 번역 출판부 책임자이다. 현재 동경 번역 총판부는 전 직원이 모두 일본인이다.

일본의 교회는 다른 면에서도 역시 크게 성장하고 있다. 택함받은 총관리 역원을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게 한다는 새로운 정책에 따라, 하와이 교포 일본인으로서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이신 에드니 와이 고마즈 장로가 아시아를 위한 상주 총관리 역원이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정책은 분명 동양인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다. 또 다른 특기할 만한 점을 말한다면 활발한 건축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건축 선교부의 부름을 받는 건축 선교사는 일반적으로 2년간 봉사한다. 이러한 교회 건축자들은 건축 사업이 끝난 후에는 복음 선교 사업을 하며, 임기가 끝나면 다시 영적인 지도자의 직책으로 돌아간다. 건축 및 부동산과의 지역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예배당 건축은 모두 일본인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는 또한 일본인 계보 전문가를 확보하여 기록과 많은 중요한 통계 자료를 필름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가족의 유대를 중요시하고 조상에 대한 존경심을 중요시하는 일본인에게 있어서 이 사업은 참으로 소중한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7년간의 일본 교회의 성장은 기적적이었다. 그것은 신앙과 간증의 기적—차디 찬 어두운 밤이 지난 후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적이었다! 우리는 일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조상에게 누를 끼치고 사회 풍습과 제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에 새로운 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증거를 분명히 본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다. 훌륭한 말일 성도가 되며, 동시에 훌륭한 일본인이 되

기 위해서, 교회 회원은 고대로부터 물려 받은 사상을 새로운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기를 나타내지 않도록 훈련받고, 사회적인 관습을 미덕으로 여겨 온 세대에 반하여 동료간에서 분연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 모든 환경에 처하여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지혜의 말씀은 육체를 하나님의 신전으로 여기게 하고, 영을 신전의 순수한 중심으로 여기게 한다. 그러나 이것이 어렵더라도 이 제명을 지켜 생활할 때, 수세기 동안 걸쳐서 행해 왔던 제사 의식을 통해서 느끼는 것보다 더 잘 인간과 우주의 조화의 참 의미를 맛볼 수 있게 된다.

훌륭한 일본인은 조상을 숭배하고, 집에 지어 놓은 가족 사당에서, 그리고 특별한 축제를 통하여 조상에게 경의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축제의 하나로 오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날은 매년 8월에 행하는 의식으로, 모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제사 음식, 행렬, 조상의 죽은 혼을 부르는 제사 등으로 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반면에 훌륭한 말일성도는 보다 심오하고 진지한 방법으로 조상을 공경할 수 있다. 곧 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가족 관계의 신성함, 가족의 영원한 인봉, 죽은 조상의 계보 탐구 등이 그것이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문자 그대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입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있는 일본 성도들은 그들 자신을 정원에 있는 바위와 나무와 관련을 지어 볼 뿐만 아니라 정원의 창조자로서...즉 타의에 의해 행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는 자로 여기고 있다. 일본 성도들은 우주를 운행하시는 창조주인 아버지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이 현세의 삶을 보다 아름답고 진실한 형태의 삶으로 변형시키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자신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면서 하늘과 땅에 대한 인간의 참다운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

아직 일본의 국민은 물문의 사상을 완전히 살펴보지 못했다. 일본의 국민이 물문의 깊은 사상을 보다 잘 알고 완전히 이해하게 될 때, 아시아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끌어 올 수 있는 자력은 무한하다. 수천의 많은 성도들은 해 뜨는 나라에서 신앙의 태양이 떠올랐다고 간증하고 있다. 이러한 간증이 살아 있는 한 앞날의 선교 사업은 약속되어 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은 동아시아에 치우쳐 있는 길이 약 600킬로미터의 산악반도로서 인구는 약 3천 5백만에 달한다. 기후는 4계절이 있으나 한국 국민성과 흡사하게 온화하다. 한국민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단일 민족이며, 낙천적이고, 인내심이 많으며, 이상을 꿈꾸고, 약간 소극적이다.

25년전, 포성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조용한 아침의 정적을 깨뜨리고 말았다. 그때가 1950년이였다. 그날 아침에 시작된 전쟁은 3년간 계속되어 2백만여의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다.

이 전쟁은 한국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해 준 예기치 못한 기적을 가져오게 되었다. 전쟁은 한국민에게 온갖



동양의 불사조 :

한국



한국

역경을 가져다 주었지만, 또한 많은 미군을 보내 왔고, 그중에는 수백 명의 물론 군인들이 있었다. 얼마 후 이들 군인들이 한국 군인들에게 복음의 간증을 나누었을 때, 말일성도의 찬송 소리가 울렸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한국은 불사조처럼 일어났다. 서울은 6백만의 인구를 지닌 현대의 수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미 잘 알려진 한국의 경제 성장보다 더 크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이 땅에서 성장하였다. 첫번째 말일성도 군인이 그의 한국 형제에게 복음을 나누었던 이래로 교회 회원은 16개 도시에서 약 1만명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 서울 스테이크 산하에는 8개 와드와 4개 지부가 있으며 두 개의 한국 선교부 산하에는 21개의 지부가 있다. 또한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12개나 된다.

말일성도 군인들은 지금도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 못지 않는 것은 한국 서울 선교부와 한국 부산 선교부에 임명된 300명의 복음 선교사와 아시아 대륙에 최초로 조직된 서울 스테이크의 5천명 회원의 노력이다.

전쟁 중에 교회로 개종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현재 교회의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다. 그들 중에 두 명이 한국 서울 스테이크 부장인 이 호남 형제와 금년 7월에 조직된 새로운 부산 선교부의 선교 부장이 된 한 인상 형제이다.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은 그가 교회에 들어 오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많은 한국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전쟁 중에 물론 친구를 통해서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전쟁중에 초대를 받아 상향회에 참석했을 때, 내게 ‘형제’라고 부르면서 소수의 군인들이 따스하게 악수를 하면서 맞아 주었을 때 나는 놀랐습니다. (나는 바다를 건너 온 군인들의 거친 태도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는 나를 상향회에 메리고 갔던 젊은 군인을 주의깊게 관찰하였습니다. 그는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순결의 법을 지키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훌륭한 모범은 나에게 큰 영향을 주어, 나는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의 개종 이야기는 많은 한국 사람들의 개종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한 인상 선교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내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한창 탈선도 하고 일상 생활을 즐길 나이였죠. 그런 나이의 소년에게 전쟁이란 너무도 직면하기에 힘든 것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나의 집으로 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가까운 친척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생활은 갑자기 재난, 공포, 낙담, 비극으로 변했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희망도 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 그러한 상황은 우리 세대가 당면했던 일반적인 처지였습니다. 집은 파괴되고, 여기 저기서 총성이 울리며, 배가 너무 고평 영적인 주립을 느낄 수조차 없을 지경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생의 의미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때에 물론 선교사들이 젊고 친절한 군인과 함께 와서 우리에게 이 생은 비참하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평화와 기쁨이 온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비참하게 우리 곁을 떠나신 사랑하는 친족들을 주님의 면전에서 다시 뵈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면전에서 우리는 행복하고 영원한 가족으로 살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 당시 다른 누구보다도 한국인에게 이 회복된 복음이 필요했으리라 생각지 않으십니까?”

첫번째 두 명의 선교사가 일본에서부터 한국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은 때는 1956년 4월이었다. 그들은 동경 선교부의 폴 시 앤드러스 선교부장으로부터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앤드러스 선교부장은 후에 한국 십이사도 지역 대표로 봉사했다. 첫번째로 한국에 도착한 선교사들은 물론 군인에 의해서 개종된 64명의 회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최초의 한국인 개종자들은 노랑 머리, 파란 눈의 외국 선교사들이 들려 주는 메시지에 상당한 흥미를 가졌다. 선교사들은 가족의 단합, 계보,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신전 사업, 그리고 순결의 법 등에 관하여 가르쳤다. 선교사들이 설명하는 하나님(신)에 대한 개념은 한국인이 이미 알고 있었던 신의 개념과 흡사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복음의 메시지는 어떻게 한국인에게 그다지 쉽사리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복음의 원리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전통적인 사상에 웃을 만한 것일 따름이었다.

일례로, 1909년에 이룩된 한국의 통속 종교, 대종교의 신에 대한 개념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과 흡사하다. 대종교에서는 하나님(신)은 여럿이며, 그중에 한 신이 가장 높고 영광스럽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분의 아들(단군)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분으로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이다.

순결의 법은 예로부터 모든 한국인이 크게 강조하여 오던 점이다.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생활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한국인은 예로부터 조상을 숭배하여 왔다. 한국 역사를 통하여 볼 때, 명문의 가문에서는 으레 족보를 작성하고 보관하여 왔다. 조상 숭배에서 심오한 철학적인 풍요함을 찾았던 한국인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의 노력 여하에 돌아가신 선조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회복된 진리는 참으로 관심과 흥미가 쏠리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었다.

한 인상 선교부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몇해 전에 나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우리 교회에 대하여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우연히 교회의 계보 사업에 대하여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대단한 관심을 모아, 결국 이로 인해서 세 번씩이나 라디오에서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 성도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족보를 기록, 보관하도록 지시하셨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 스테이크 고등 평의회 의원인 김 산 형제님은 자신의 선조 70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족보를 찾았습니다. 그분은 지금 성경의 계보와 연결시키는 문제에 크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초창기 개종자의 한 분이신 김 도원 자매님은 연로하시고 병약하신데도 불구하고 40대 선조까지의 족보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계보 탐구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한국 가정의 족보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특별한 단위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특히 가족을 중요시하고 있다. 일례로, 전통을 따르는 한국 가정은 대가족제를 취하고 있다. 즉 들 내지 세 세대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서구 문화가 들어 오면서 이와 같은 가족 제도는 급속히 변하고 있으나, 가족

관계는 여전히 강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회의 가정의 밤 프로그램은 한국인의 기질에 잘 맞는다.

한국인의 배움에 대한 열의는 예로부터 내려 온 전통이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지식층의 회원을 많이 찾을 수 있다. “무지하고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교성 131:6)는 말을 한국민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1968년 2월 27일, 서울을 방문하셨던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의 개인 일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한국 성도들은 지식에 굶주린 사람같이 지식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많은 성도들이 학위를 갖고 있고, 박사 학위까지 가진 회원도 있다. 한국 성도들은 외모에 있어서도 뛰어난다.”

한국의 최초의 개종자인 김 호직 박사는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는 한국민의 대표라 할 수 있다. 그분의 친구는 “그분의 의로운 영향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한국 사람에게 참된 빛이었음니다”라고 박사에 대하여 말했다.

1956년,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지방부장인 김호직 박사의 도움으로 선교사들은 사업을 시작하였다. 김 박사가 성립받는 때는 그보다 앞서, 8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던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께서 전쟁의 참화 속에 파괴된 서울을 언덕에서 내려다 보시며 한국을 복음 전파지로 헌납하셨을 때였다. 스미스 장로께서 한국에 오시기 전에 이미 1954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해롤드 비 리 장로의 현지 답사 여행이 있었다. 20년 전, 8월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복음 선교지로 헌납한 언덕으로부터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을, 이 경륜의 시대에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께서 역대 대관장 중 최초로 8월에 방문하셨다는 사실은 우연한 일이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한국의 선교사들은 당시 한국의 문교부 차관이었던 김 박사의 지도를 3년간 받았다.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정신은 매우 강했다. 1951년 전쟁이 치열하던 때에 김 박사는 미국 코벨 대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대학원 친구에 의하여 개종하게 되었다. 이미 한국 정부 요원이었던 45세의 김 지방부장은 1951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박사 학위를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해에 122년 전,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침례를 받았던 사스캐하나강에서 그가 침례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최초의 개종자가 되었으며, 전쟁 중에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정부 요직에 복직했다. 1952년 8월 그분의 두 딸이 미국 군인으로부터 침례를 받아 초창기의 회원이 되었다. 1959년 그의 임종 때까지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오늘날까지 말일성도로서 아시아에서 그분이 맡았던 직책보다 높은 정부 요직을 맡은 사람은 없었다.

김 형제님의 정부에서의 직책은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으나, 그는 교회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중요시하였다.

어느 일요일 아침, 그가 주일학교 교사로 가르치고 있을 때, 당시 대통령이신 이승만 박사께서 중요한 국사를 의논하기 위하여 그의 비서를 보내 김 박사를 대통령 전용차로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로 모셔 오도록 했다.

비서는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김 형제님을 발견하고는 곧 대통령에게 가보도록 부탁했다. 김 형제님은 주일학교가 끝날 때까지는 같이 갈 수 없다고 그에게 말했다. 드디어 김 형제님이 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은 늦게 온 것을 꾸짖으셨다. 김 형제님은 대통령과 그곳에 모인 다른 정부 요원들에게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임무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주일학교 분반이 끝날 때까지 소환에 응하지 못했노라고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김 형제님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주는가를 깨닫고는 “잘했소!”라고 대답하였다.

1962년, 기일 이 카 선교부장을 초대 선교부장으로 한국 선교부가 조직되었다. 이 조직은 1961년 5월 십이사도 정원회의 고든 비 힝클리 사도의 역사적인 방문이 있던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선교부가 조직되자, 한국의 교회는 더욱 급속히 발전해 갔다. 침례자의 수는 점점 증가하여, 1974년 한 해 동안만에도 900여명의 침례자가 나왔다. 가족 단위로 개종하여 교회로 들어 오는 수가 점점 많아졌다.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과 돌아가신 선조를 위한 제보 프로그램은 다른 어떤 사회 조직보다 가정을 중시하는 성도들에 의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교회의 프로그램이 확장되고 한국 성도의 수가 더욱 늘어남에 따라, 또한 지역 대회로 많은 중관리 역원의 방문을 받음으로써, 1967년 4월 서울을 방문하면서 하신 휴비 브라운 장로의 다음 말씀이 점차로 성취되고 있다: “앞으로 이 땅의 수 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하게 될 것이며, 복음의 원리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축복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성도의 베타는 이 기사를 제공해 주신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님과 한 인상 선교부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필

리핀 공화국은 다양성을 지닌 매력적인 나라이다. 지리적으로, 북으로는 대만 가까이서부터 남쪽으로는 말라야 근처까지 1600킬로미터나 길게 늘어선 열대지방의 아름다운 7,10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곳이 곧 필리핀이다. 필리핀의 대부분의 곳은 화산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국토의 절반 가량이 이름없는 섬이다. 이 화산 작용으로 인하여 조그마한 섬들이 없어지기도 한다. 바로 척도 열대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큰 섬에는 삼림이 우거져 있다. 이와 같은 높은 산과 삼림이 아직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매혹적인 다양성은 지리적인 데서만이 아니라 필리핀 민족에게서도 나타난다. 필리핀이 중국인, 미국인, 인도인, 스페인인, 일본인의 조상으로 이루어졌거나, 또는 이들의 혼합 인종으로, 말라야의 단일 영향력을 길게 지니고 있다. 필리핀인의 종교는 천주교, 신흥, 모슬람교, 또는

이교 등 다양하다. 필리핀인의 8가지의 주로 사용되는 언어와 80여종의 소수 무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 어느 언어나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양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서로 혼합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필리핀인은 사회적인 이질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바야니한(협동)이라는 전통을 지켜 오고 있다.

이 바야니한(협동)의 전통은 교회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1961년, 고든 비 힝클리 장로는 필리핀을 복음 선교지로 다시 헌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을 축복하시어, 이들이 우애깊고, 친절하고, 품위있는 백성이 되게 하옵시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복음이 가져다 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협동 정신이 강한 이들에게 하신 힝클리 장로의 예언은 지금 성취되고 있다. 이곳에서 봉사하였다가 본국으로 귀환한

복음 선교사들은 종종 자기들이 문전에서 거절당해 본 적이 없었다고 보고한다. 알지도 못하는 가족들끼리도 그들을 집안으로 들여서 식사를 나누었다. 빅토리아에 선교사들을 처음으로 파견하였을 때, 사람들이 “아무 배도 없는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에 발리타와 시의 근교에 있는 한 지부장은 마닐라 선교부장에게 주일학교에 참석하고 있는 구도자의 수가 35명이나 된다고 보고했다. 필리핀이 남극동 선교부에서 분리된 이래 8년 동안, 필리핀 교회는 크게 발전하여, 현재 두 개의 선교부와 1개의 스테이크에는 약 2만의 회원이 확보되어 있다. 이와 같은 획기적인 발전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은화한 성품을 가진 필리핀의 전통 속에서 선교사와 회원이 서로 협동한 결과이다.

귀환 선교사 한 명은 동반자와 함께 영어를 열 마디 정도밖에 할 줄 모르는 메리라는 가정부를 가르쳤다고 보고했다. 메리는 비록 영어를 알아 듣지 못하여 이해하지 못했으나, 모임의 분위기가 좋아서 회원인 주인집 식구들과 함께 교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그녀는 복음 공부하기를 거절했다. 그러자 주인집 식구들은 사랑과 협동심으로 토론의 한 마디 한 마디를 통역해 주었다. 친구와 사건의 도움으로 메리는 물문경을 읽기 시작했다. 어떤 때는 물문경 한 페이지를 읽는 데 하루가 걸린 때도 있었다. 그녀는 침례받은 후에 영문판으로 된 기이한 엄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읽었다.

바야니한(협동)의 강한 정신은 특히 가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가족의 긴밀한 단합은 교회 내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만

바야니한 군도 : 필리핀



든다. 가정의 밤을 통해 접근하는 새로운 선교 프로그램은 필리핀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회원들이 친구들을 가정의 밤에 초대하고 복음 선교사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한 결과 40여명이 침례를 받은 곳도 있다.

필리핀인은 복음을 알게 되면 이를 친척들과 나누고 싶어한다. 조세 줄루에타는 조카가 물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듣고는 알아 보려고 왔다. 그는 부끄러워했으나 대단히 열심히 공부했다. 5주 후, 그는 아내와 자녀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 다음날 아침 그는 선교사들은 찾아와 훌륭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지금까지 받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었습니다. 나는 내가 행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었다고 말씀해 달라고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낙담하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가 자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대답하자 흰옷 입은 사람은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네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선교사들을 너희 가정에 보내신 주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길로 줄루에타 형제는 선교사에게 와서 그 꿈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물었습니다.

“꿈을 꾸신 후에 어떠한 느낌이었습니까?” 선교사가 물었다.

줄루에타 형제는 눈물어린 눈으로 영에 충만함을 느꼈노라고 말했다. “그날 밤 나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여러 차례 기도 드렸습니다.”

바야니한(협동)의 정신은 1973년에 마닐라에 조직된 새로운 스테이크에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부 역원이 스테이크 지도자의 직책을 맡게 되자 지부는 빈공석을 채워야만 했다. 지부 회원의 협동을 관찰한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지도자들은, ‘그 자매님은 정말 훌륭한 초등학교 회장이십니다. 어디에서 오신 분입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자매님은 전부터 늘 그곳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다만 전 초등학교 회장이 스테이크 역원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부름을 받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신학 연구원 프로그램에서도 학생과 교사와 복음을 나누는 일간의 협동의 좋은 예를 볼 수 있다. 4년 전, 100명의 학생

과 9명의 교사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현재 전국적으로 2,000명의 학생과 100여명의 교사로 발전되었다. 마닐라 필리핀 스테이크 부장, 아우구스토 에이 림 형제는 광산 회사 변호사로서의 직업을 그만두고 신학 연구원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젊은 학생들의 간증을 강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시켜 주는 것을 보면서 스테이크 부장은 큰 힘을 얻는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필리핀인 선교사로서 레이날도 산체즈 장로가 있다. 그가 실장으로서 이동을 받아 갔을 때, 그 곳에는 4명의 미국인 복음 선교사가 열심히 선교했으나 지난 5개월 동안 한 명의 구도자도 개종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필리핀 특유의 열의와 지식으로써 열심히 구도자를 가르쳐 첫달에는 10명에게 침례를 주고, 다음달에는 8명에게 침례를 주었다.

이와 같은 개종 이야기는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전형적인 이야기이다. 이는 구하고 회생할 때 주님께서는 필리핀인을 축복하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예를 현재 필리핀 세부 시티 선교부장단의 제1보좌로 봉사하고 있는 세닌 제이 피네다 형제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다.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산 페르난도 시가지를 차를 몰고 달리고 있을 때, 그는 두 젊은 미국인을 보게 되었다. 그는 차를 멈춰 세우고는 선교사들이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자기 집으로 가자고 초대하였다. “그 선교사들은 거의 책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라고 그는 그때를 기억했다. 첫 번째 토론에서 지혜의 말씀을과 심일조에 관한 문제가 나오자 피네다 형제는 선교사들의 말을 중단시키고는 다른 방에 가서 그와 아내가 모아 놓았던 심일조를 갖고 나왔다.

피네다 가족은 이미 다른 신교의 한 교파에서 심일조의 원리에 대하여 배웠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이미 침수으로써 침례도 받았고, 안수으로써 병자 기름 축복을 받았으며, 주일학교도 가졌었고,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활동도 가졌었다.

그러나 지난 두 달 동안 그들은 교회에 참석하지 않고, 매일 밤 피네다 형제는 가족이 잠든 후에 주님께 가족을 참된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던 중이었다. “나는 아직도 어떻게 참된 교회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피네다 형제는 말하고 있다. 그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것

처럼 생각되었다.

그는 하루에 평균 6잔의 커피를 마셨으며, 담배는 평균 3갑을 피우고 있었다.

그러나 첫 번째 토론에서 선교사들이 지혜의 말씀을 설명한 후에,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말씀드리며, 저는 그러한 것을 무릎 꿇는 것만큼이나 쉽게 끊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토론을 하기 전에 아내의 극력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는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후에는 아내와 자녀가 모두 침례를 받았다.

그러던 중에 시험이 닦쳤다. 그가 지방 부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 그에게 필리핀에서 가장 큰 담배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다. 판매 책임자가 그를 만나기 위해서 80킬로미터나 되는 곳을 찾아 와서는 하루 온종일 그를 기다렸으나 그는 교회에 가서 응답을 구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그 직장을 포기하였다. 몇 개월 후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매 책임자는 그에게 일을 해 줄 것을 청했다. 이번에는 이 자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유혹이 더 컸다. 왜냐하면 딸이 대학에 들어 갔고 다른 아이들도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피네다 형제는 승낙하였다.

“재정적인 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늘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가정에서 조그마한 실수에도 나는 화를 불끈 내곤 하였습니까”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가정의 기쁨은 회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을 적게 벌고,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하고, 친구들과 친척들로부터 비난을 받더라도 가정의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했다. 그는 “복음에 대한 간증을 잃지 않은 채” 사표를 내고 말했다. 가족은 새로운 재정 상태에 빠지자 서로 협력하였다. 자녀들은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은 예상대로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후회는 없습니다. 나의 가족과 나는 내가 사표를 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성도들의 이같은 노력으로 교회는 발전하고 있다. 필리핀 세부 시의 선교부의, 칼 디 존스 선교부장이 선교사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아주 작은 발을 추수했을 뿐입니다. 교리와 성약 4편 4절에 약속되어 있듯이 ‘이미 무르익어 추수할’ 곳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6만 5천 극동 회원 위해 말일성도 신전 건립 일본 토오쿄오에

아시아에서의 교회 사업의 기반이 확고함을 인정한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은 서울 장충 체육관에서 열린 한국 대회에 참석한 수 천명의 회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이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건립될 동경 신전은 전 세계에서 열 여덟번째의 신전이며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신전이라고 김블 대관장은 말했다. 이 신전은 일본 성도 2만5천명, 필리핀 성도 1만5천5백명, 한국 성도 8천7백명, 대만 성도 8천5백명, 홍콩 성도 4천1백명 등 아시아에 거주하는 6만4천명의 교회 회원을 위하여 건립될 예정이다.

김블 대관장은 신전에서 행해지는 성스러운 사업은 산 자이거나 죽은 자이거나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원리를 미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이기심없는 사랑의 사업이라고 말했다.

동경 신전은 15여년전 교회가 매입하여 놓은 대지에 건립된다. 신전이 들어설 장소는 아리수가와 공원 맞은편, 동경 시미나·도쿠미나미 아자부 5-8-1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이곳에는 일본 동경 선교 본부가 있다.

대지는 18,000평방피트 약 반에 이커에 해당한다.

교회 건축가인 에밀 비 페처 형제가 신전 설계를 맡았다. 그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건립될 새 신전의 설계와 1972년에 헌납된 유타주의 프로보 신전과 옥든 신전의 설계를 이미 맡은 바 있다. 페처 형제는 1974년 11월에 헌납된 워싱턴 더시 신전을 설계한 건축가들의 일을 지지하기도 했다.

페처 형제는 동경 신전부지에 있는

현존 건물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선교 본부와 일본 동경 스테이크 센터는 동경내의 다른 지역에 위치한 교회 대지에 세워진다.

세부적인 설계 작업은 1976년 초에 완성될 것이며, 18개월 내지 2년이 걸리게 될 건축은 1976년 전반기에 시작하게 되어 있다.

신전은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건립된다. 지상 일층은 너비 76피트, 길이 88피트이다. 건물 중앙부의 높이는 지상에서 65피트나 되며, 좁은 색유리 창문으로 꾸며질 탑의 높이는 1백84피트나 된다. 신전 양쪽에는 승강기와 계단이 있는 탑이 세워진다.

지진에 대비하여 안전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동경 건축법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설계될 신전은 철근 콘크리트와 강철과 흰돌로 건축된다. 사용될 돌은 물색중에 있다.

냉·난방 시설을 갖추게 된다.

방문자가 들어 올 신전의 지상 1층에는 현관홀, 신전장단, 부녀 책임자, 서기 역원용, 사무실, 청소년 센터와 유아실, 의복관리실, 식당, 부엌, 세탁실이 있게 된다.

1층에는 출입구가 다른 신전복 배부 센터도 마련된다.

2층에는 남녀 옷장, 아름다운 신부가 옷을 입는 방과 유의 사항을 듣는 방 그리고 신랑이 유의 사항을 듣는 방이 만들어진다.

신전장과 그의 아내가 거주하게 될 아파트는 따로 만들어진 출입구를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으며 2층에 마련된다. 그곳에는 침대 2개와 욕실, 식당, 거실, 부엌이 딸리게 된다.

3층에는 1백20명의 신전 방문자를

수용할 수 있는 작은 예배실 1개, 죽음을 넘어서 영원토록 지속될 결혼이 집행되는 인봉실 5개가 마련된다. 신전 밖에서 결혼한 부부도 신전에서 결혼식을 거행하면 똑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신전에서 결혼한 부부의 자녀는 죽은 후에도 부모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3층엔 신전 종사자들을 위해 옷장과 휴게실이 마련된다.

4층에는 2개의 의식실이 마련되는 데 각각 백 명의 신전 방문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해의 왕국실이 이곳에 마련된다.

신전 지하층의 주요 특징은 침례반이다. 이것은 고대 솔로몬의 신전안에 있었던 침례반처럼 12마리의 황소가 받치고 있다.

지하층에는 또한 기계 비품과 저장실, 그리고 16대의 차가 주차할 수 있는 차고가 들어 선다.

신전 주변은 그 규모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을 받았으나, 섬세한 일본의 전통에 따라 아름답게 꾸며진다. 신전 주변의 돌벽은 군데군데 험고 쇠울타리를 만들어 통행인이 정원을 볼 수 있게 한다. 페처 형제의 말에 의하면 신전 부지를 선정하는 데 참작한 결정적인 요소의 하나는 동경에서 교통이 편리한 장소였다는 점이다. 동경 지하철의 하나인 히비야 지하철의 히로오 역은 신전에서 도보로 5분 내에 갈 수 있는 곳이다. 비행기나 기차나 배로 동경에 오는 신전 방문자는 그들의 도착지에서 동경 지하철 중앙역과 히로오역으로 직접 갈 수 있다.

신전 부지 앞에는 시내 버스 정류소도 있다.

